2022년 2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현대불교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❸ 붓다의 생애와 변상도 ①

▶ 한줄 요약
불교미술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붓다의 생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담은 본생도로도 조성되는데 이는 중국 돈황 석굴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내 몸 희생해 뭍 생명 구하다

불교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기에는 먼저 붓다의 생애에 관련된 작품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이다. 이미 앞에서 인도 초기 불사리탑 기단에 붓다의 사적(事蹟)이 조각되어 있음을 말했으며, 중국 돈황석굴에도 붓다의 생애를 표현한 회화작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초기 벽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승교(小乘敎)의 〈현우경〉과 〈불설수행본기경〉 등에 근거하여 그린 본생고사(本生故事)와 인연고사(因緣故事), 그리고 불전고사(佛傳故事)이다.

본생고사는 붓다 전생의 갖가지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녹왕본생(鹿王本生)·시비본생(尸毗本生)·살타본생(薩埵本生)·월광왕본생(月光王本生)·비릉갈리왕본생(毗楞竭梨王本生)·섬자본생(睒子本生)·수달라본생(須達拏本生)·선사태자본생(善事太子本生) 등의 벽화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의 민간에서 전해지다가 불교가 흥기한 이후에 불경으로 편입된 것으로서, 불교의 낙인(烙印)이 찍혀있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들어온 것이다.

본생담(本生譚, Jataka)이란 부처님께서 전생에 쌓으신 수행 이야기로서 오늘날 전해지는 내용은 547편에 이른다. 본생도(本生圖)란 쉽게 말해 붓다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돈황의 벽화 중에는 이런 본생도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경전에서 붓다는 전생에 국왕, 승려, 혹은 상인 혹은 여자 혹은 동물로 태어나 선업(善業) 공덕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① 돈황 제275굴 북벽의 본생도. '시비왕본생(尸毗王本生)'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처님 전생 수행기 '본생고사'
살을 베어 비둘기 구한 시비왕
굶주린 虎에 몸 던진 살타태자
모두 부처님의 전생 선행 일화
돈황 석굴 內 본생도로 전해져



그림② 돈황 제254굴 남벽의 본생도. '살타본생(薩埵本生)'의 내용이다.

시비왕 본생도

그중에서도 시비왕(尸毘王)이 살을 베어 비둘기를 구한 이야기는 붓다가 작은 생명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자비심을 베풀고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옛날에 시비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람됨이 착하고 불법을 좋아하여 중생의 고난을 널리 구하려 했다고 한다. 제석천(帝釋天)과 비수갈마(毘首摩摩)는 그의 뜻을 시험하려고 독수리와 비둘기로 변신하였다. 독수리는 비둘기를 뒤쫓았고 비둘기는 시비왕에게로 날아가 보호를 요청하였다. 독수리는 시비왕에게 "비둘기는 내 먹이로 비둘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게 된다"고 말했다. 시비왕은 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독수리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비둘기를 구하고자 했다. 독수리는 베어낸 고기와 비둘기의 무게가 같아야 한다며 저울에 달길 요구했다. 그러나 시비왕은 자신의 살을 다 베어내도 비둘기의 무게보다 모자라 성의를 다하기 위해 저울판에 몸을 실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천지가 감동하여서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제석천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시비왕에게 왜 이렇게 자신을 희생했느냐고 물었다. 시비왕은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석천은 시비왕에게 몸을 훼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비왕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네 몸을 회복시켜주리"라는 말이 나오자 곧 시비왕의 몸은 바로 원래대로 회복됐다.

돈황 막고굴에는 붓다의 전생에 대한 희생정신을 표현한 시비왕 본생 설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북량 제275굴(尸毗王本生, 제275굴 북벽)과 북위 제254굴(薩埵本生, 제254굴, 남벽) 두 점이 가장 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막고굴 제275굴 북벽 중층의 시비왕 설화는 시비왕이 자신의 살을 베어 매에게 먹여 비둘기를 구해내었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막고굴 최초의 불본생고사화(佛本生故事畵)이다(그림①).

그림 중에 주요 인물은 주인과 세 명의 종이고, 그 밖에 매, 비둘기, 비천, 들이 그려져 있다. 중심 내용이 한 장에 나타나는 단폭식(單幅式) 형식으로 인물은 단순하고 서역 양식이 농후하다. 화면 왼쪽에는 왕의 오른손으로 녹색 비둘기를 잡고 있으며 한 칼잡이가 왕의 허벅다리 살을 베고 있고 있다. 오른쪽에는 한사람이 큰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의 한쪽에는 작은 비둘기가 올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왕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인물들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긴 눈썹, 높은 콧날, 큰 눈, 넓적한 입술 등의 형상은 신강(新疆) 초기 석굴 예술의 인물 모습과 유사하다. 인물들의 표정이 확연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칼을 휘두르는 자의 흉폭한(The Furious Wild) 표정과 시비왕의 평온하고 대범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막고굴 제254굴 북벽 앞부분의 시비왕 이야기 그림도 단폭식이지만 구도와 인물, 회화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화면 중앙에 옆으로 비켜앉은 시비왕은 왼쪽 무릎을 드러내어 칼잡이에게 내주고 오른손에는 구원을 요청하러 온 비둘기를 잡고 있다. 기타 이야기 줄거리는 주인공 시비왕 둘레에 배치되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독수리가 비둘기를 쫓고 오른쪽 하단에 한 사람이 비둘기와 시비왕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다. 아래쪽에는 시비왕의 여자 권속들이 무릎을 껴안고 흐느껴 울고, 왼쪽 위에는 천인 권속들이 찬탄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인물의 조형 방식과 의복의 묘사 등은 제275굴과 마찬가지로 서역화풍의 영향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묘사는 이전보다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북위의 정교한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살타태자(薩埵太子)본생도

붓다의 여러 가지 전생 이야기 중 살타태자가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 먹이가 된 이야기는 여러 경전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는데, 〈금광명경(金光明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붓다 전생의 한 사람인 마하마하살타 태자가 두 형과의 여행 도중 첫째 형이 우연히 절벽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한다. 이 호랑이는 7일째 7번째 새끼를 낳고 굶주려 아사 직전에 있으며 7마리 새끼들은 어미를 에워싸고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이에 셋째 왕자인 살타태자는 이들에 먹을 것을 주자고 했다.

첫째 왕자가 말하길 "이 호랑이는 신선한 고기와 피만 먹는다"고 하자 셋째 왕자는 "그럼 우리 중 누가 이 호랑이 먹이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둘째 왕자는 "이 호랑이는 굶을 대로 굶고 말라 빠져 이제 무엇을 먹여도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누구도 여기에 아까운 신명(身命)을 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때 셋째 왕자는 용감하게 대원을 세우고 대비심을 내게 되었다. 두 형들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을 덮을 수 없어 "형들의 권속이 이 지경에 처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바로 호랑이가 있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 옷을 벗어 대나무 가지에 걸쳐놓고 서원을 하였다.

"내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 최상승 무상도를 증명하겠노라. 대비(大悲) 부동(不動)의 마음으로 나투어 보리를 구하고 3계의 중생을 모두 제도하며 생사의 공포심을 없애겠노라."

그러면서 바로 몸을 호랑이 앞에 내밀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태자의 자비심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에 태자는 호랑이가 워낙 굶주려 기력이 없으므로 내 육신을 못 먹는다 생각하고 주변에서 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 마른 대나무 가지로 자신의 목을 찌르니 피가 흘러나왔다. 이때 천지가 6번 진동하였으며 호랑이는 피로 물든 태자의 몸을 핥고 육신을 뜯어먹어 뼈만 남겼다. 이를 보고 두 왕자는 가슴이 답답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사실을 대왕 마하라타(摩訶羅陀)와 왕비가 알게 되었고 부모는 슬픔에 잠겨 그곳에 대중을 불러모아 유골과 유품을 수습하여 7보탑을 세웠다.

살타태자의 이야기를 시각형상으로 표현한 부조와 벽화가 많은데, 막고굴 제254굴과 428굴의 벽화가 대표적이다. 이것들이 그려진 시기는 큰 차이는 없으나 구도와 조형 기법이 서로 달라 동서미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변화의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석굴 안쪽 남쪽 벽에 그려진 제254굴 벽화는 네 모난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인이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인 일곱 장면을 잘 골라 이 벽면에 시계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북위 초기 불교벽화의 구도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②)

화면에 보이는 태자는 특별히 크게 그려져 있다.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대나무로 목을 찔러 피를 호랑이에게 먹힌 다음 두 손을 합장하고 산벼랑에서 떨어지는 장면이다. 벽화는 인물 중심이며, 인물 하나하나의 몸매가 늘씬하고, 조형이나 복식 그리고 색채의 활용이 비교적 이국적인 맛을 자아내고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